보도자료	청와대	대변인실
2011년 3월 13일 (일)	미래기획위원회	박수민 국장 (2180-2104) 안창국 과장 (2180-2113)

○ 배포일시 : '11. 3. 13(일) 09:00

○ 보도일시 : '11. 3. 13(일) 20:00부터(아부다비 현지시간 15:00)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37년만에 UAE 아부다비 유전의 문을 열다.

미국·영국·프랑스('30~'40년대), 일본(70년대)에 이은 첫 나라

"사상 최대 유전 확보"

2009년말 원전 계약 체결 이후 우리나라와 '10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해 가고 있는 UAE 아부다비 지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 2째날인 3.13일, 칼리파 UAE 대통령,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 등이 함께 임석한 가운데 양 국간의 원유 개발 협력과 미래 성장 동력 협력 체결을 위한 총 3가지 문건에 각각 서명했다.

[원유 개발 협력 2건]

(1) 석유가스분야 개발 협력 MOU
(서명자 : 한국 석유공사 사장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사장(ADNOC))

(2) 3개 유전 주요 조건 계약서(HOT, Heads of Terms)
(서명자 : 한국 석유공사 사장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사장(ADNOC))

[미래 성장 동력 협력 1건]

(3) 미래 성장동력 공동 협력 MOU
(서명자 : 한국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아부다비 미래전략기구 위원장)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 이후 굳게 닫혀 있던 UAE 아부다비 지역의 유전에 진출하는 첫 나라**로 기록되게 되었다.

UAE 아부다비는 전 세계 6위의 매장량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 세계 핵심 유전 지역인 중동 지역(전 세계 매장량의 57%)에서도 가장 우량한 유전 지역으로 손 꼽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간 UAE 아부다비 지역은 1930~40년대에 진출한 미국·영국·프랑스, 그리고 1970년에 진출한 일본 등 극소수 국가 석유 메이저들만이 현재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는 지난 2009년말 원전 수주 이후 '100년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관계를 발판으로 금번에는 전 세계 핵심 유전 지역인 UAE 아부다비 유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금번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유전 확보'**로 이어 짐에 따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전 확보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약 4%대에 머물렀던 국가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을 15% 수준까지** 확보하게 되어 최근 불안한 국제 원유 시장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에 적지 않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서명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UAE 아부다비로부터 또 다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2009년 원전 수주에 이어 오늘을 또 다른 특별한 의미로 기억할 것입니다."

"먼저 그간 특별히 애써주신 칼리파 대통령님과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함께 애써주신 아부다비 정부 관계자 분들과 ADNOC 관계자 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전을 계기로 맺어 진 양국간의 100년 관계는 오늘을 계기로 또 다시 한 차원 높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들의 배려로 오늘 한국은 1970대 이후로 어느 나라도 진입하지 못했던 UAE 아부다비 유전에 진출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가 올 100년간의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 양 국간의 관계가 원전과 오늘 발표된 원유 개발 분야를 넘어 신속히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함께 체결된 '미래 성장 동력 협력'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양 국의 100년간의 동반자 관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들은 맨 땅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열정을 가지고 이 소중한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금번 협력 체결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과 미래 성장동력 협력 착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 참고 1 > 상세 보도자료

Ⅰ. 우리나라, 1970년대 일본 이후 UAE 아부다비 유전에 첫 진출

석유 1번지, UAE 아부다비

UAE 아부다비는 전 세계 매장량 6위(약 1천억 배럴)의 핵심 유전 지역.

또한 배럴당 평균 생산단가가 전 세계 평균의 1/10 수준으로서 경제성이 가장 우수하며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 환경도 가장 안정된 지역

최근 사우디·쿠웨이트 등 다른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개발 사업을 대부분 국가가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UAE 아부다비, 이라크 정도)

더불어 심해저, 격오지 등 최근 개발되고 있는 유전 지역들과 달리 근무 여건과 생활 여건도 양호하여 석유 업계에서는 '전 세계 석유 1번지'로 불리는 지역.

선진국들만의 '프레미어 리그'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 지역은 1930~40년대에 진출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과 1970년대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 말고는 진출한 사례가 없는 지역. 선진국과 석유 메이저들만의 '프레미어 리그'로 불림.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원전 수주 이후 조성된 양 국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의 관계에 힘 입어 지난 1년간 이 지역 유전 진출을 시도해 왔으며 금번 2건의 서명 체결로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을 확정지음.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합동팀

이로써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일본 진출 이후 굳게 닫혀 있던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의 문을 연 첫 나라로 기록될 전망

* 2009년 美 옥시덴탈社가 소규모 유전(0.6억 배럴)에 진출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소규모 유전으로서 금번 우리나라 진출과 성격이 상이, 또한 국적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미국 기업

Ⅱ. 미국·영국·프랑스·일본에 이은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격상

석유 업계 77위 한국의 진출

금번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은 '아직 취약한 우리나라 원유 개발 업계의 현황'에도 불구한 이루어 진 것으로서 그 배경이 주목됨.

현재 우리나라 원유 개발 업계의 전 세계 순위는 77위(석유공사 기준)로서 글로벌 메이저급은 물론 그 다음 중간 그룹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석유 메이저들만 진입해 있는 UAE 아부다비 유전에 우리나라가 진출한 것은 전 세계 석유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

100년간의 전략적 미래 파트너-쉽

결국 원전 계약 체결 이후 '10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표현되어 온 양 국간의 관계가 금번 한국의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로 여실히 입증된 것.

이제 한국은 미국·영국·프랑스·일본에 이은 UAE 아부다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식 확인된 것으로서 앞으로 자원·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윈-윈 전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갈 것.

결국 금번 한국의 UAE 유전 진출은 향후 '향후 50~100년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간다'는 양 국간 전략적 미래 파트너-쉽의 결과.

양국 미래전략기구들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

실제로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인해 금번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은 양국의 미래전략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협력을 추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참여했으며 UAE 아부다비 정부에서는 아부다비 미래전략기구인 E.A.A (Executive Affairs Authority, 위원장 칼둔 알 무바락)가 참여.

양 기관은 지난 2009년말 원전 계약 체결이후 양국간의 공동 미래 전략 기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전체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금번 협상과 협력도 전체적으로 지휘.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원유 개발 협력이 가시화 되면서 양국 원유개발 기관들인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KNOC),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ADNOC) 등이 후속으로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체제로 진행 됨.

Ⅲ. UAE 유전 진출 내용

금번 유전 진출은 2가지 방식으로 추진

1. **향후 최소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 유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한아부다비 석유가스분야 협력 MOU 체결)

   * 가채 매장량 기준, Technically Recoverable Reserves

2. **3개 미개발 유전 광권에 대한 독점 권리를 우리나라에게 보장**
   (3개 유전에 대한 주요 조건 계약서 체결, HOT - Heads of terms)

   * 3개 광구 매장량 : 총 5.7억 배럴(발견 원시 부존량)
   * 10억 배럴이상 MOU(1번 항목)과 별개

1. 한아부다비 석유가스분야 협력 MOU 체결

10억 배럴이상 대형 상업 유전 진출

아부다비 정부와 우리 정부는 향후 “최소 10억 배럴 이상(가채 매장량 기준, Technically Recoverable Reserves)의 UAE 아부다비 대형 생산 유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MOU에 각각 서명.

금번 MOU 내용, 내년 중 신속 구체화

현재 아부다비 대형 생산 유전들은 3년후(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조광권의 기한 만료가 도래.

따라서 아부다비 정부는 위와 같은 대형 생산 유전들의 조광권 재계약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2012년)부터 재계약 협상을 하나씩 마무리해 나갈 전망

아부다비 정부는 위와 같은 재계약 협상이 마무리되어 시점에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MOU에 담고 서명한 것.

이에 따라 금번에 체결한 MOU 내용은 내년 중으로 구체화. 정부는 이를 위한 후속 협력과 협상을 신속히 추진해갈 계획.

양국 최고 지도자들 양해와 임석하에 체결

특별히 금번 MOU는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임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체결됨. 프로젝트 자체가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양해하에 착수된 것임에 따라 그 결과도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

또한 양국 정부의 국영 석유개발기관들인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와 한국 석유공사(KNOC)가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후속 협상과 협력이 보다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원유개발 담당 기관들이 서명하도록 양국 정부가 합의.

금번 MOU는 양국 최고 지도자들, 양국 미래전략기구, 양국 석유개발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결과물로서 내년 중 순조롭게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

민간 회사와 개별 기관들간에 맺어지는 실무적 MOU와는 성격과 무게감이 다른 상황.

이미 생산중인 중동 상업 유전에 진출

또한 금번 MOU에 따라 우리가 진출하게 될 10억 배럴 이상의 UAE 아부다비 대형 생산 유전은 현재 이미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유전들.

통상 수년간의 탐사를 거쳐야 하고 탐사 후에도 매장량이 없거나 채굴이 용이하지 않은 탐사 리스크가 존재하는 탐사 유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

향후 유전 진출 후에는 탐사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전망.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의 의미.

또한 금번 MOU는 기한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 지속적인 유전 확보도 가능하다는 의미.

우리 정부는 신속한 후속 협상과 협력을 통해 MOU 내용을 내년 중으로 확정해나갈 계획이며 양국의 '100년간의 파트너 관계'를 더욱 성숙시켜 UAE 유전 진출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

2. 3개 유전에 대한 주요 조건 계약서 체결, HOT - Heads of terms)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 권리 확보

또한 우리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는 UAE 아부다비 지역내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해 우리나라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주요 조건 계약서도 함께 서명**.

양국 정부는 금번 이명박 대통령 방문에 맞추어 양국 원유 개발 협력의 성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아부다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개 미개발 유전을 한국측에게 신속 부여하기로 함.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추기 위해 HOT 형식을 채택

따라서 양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3개 광구에 대한 핵심 조건들을 우선 발췌하여 논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조건 계약서(HOT, Heads of terms)형태로 금번 서명을 추진

금번 방문 일정 전에 본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양국 정부는 우선 HOT 형태로 한국의 독점 권리를 확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후속 협상과 본 계약을 추진하기로 합의

총 5.7억 배럴의 발견원시부존량
(Discovered Petroleum Initially In Place)

3개 유전은 총 5.7억 배럴의 발견원시부존량이 이미 확인된 상태로서 우리나라 석유공사의 1차 기술평가까지 마친 상태.

이에 따라 금일 HOT 체결이후 추가적인 기술평가와 세부 상업협상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어질 예정이며 이와 같은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과 상업조건 등이 결정될 전망.

금년 중 본계약 체결, 빠르면 2013년부터 생산 전망

3개 유전에 대한 본 계약은 앞서 말한 후속 협상과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금년 중 추진될 계획.

금년 중 본 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생산은 빠르면 2013년부터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최대 일일 35,000배럴까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해외 유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 독자 개발 가능성도 확보

또한 금번 주요 조건계약서에는 3개 광구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 유전 참여시 대부분 재무적 지분 투자위주로 참여. 이에 따라 우리가 직접 유전을 개발·운영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아 오지 못한 것이 현실.

그러나 금번 3개 광구는 우리나라가 최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직접 유전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

3개 광구 원유는 유사시 우리나라에 도입

아울러 위 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 중 우리측 보유 물량은 유사시에 100%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여 위기시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사상 최대 유전 확보

위 2가지 석유개발 서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향후 '사상 최대 원유 매장량'을 UAE 아부다비에서 확보했음.

지금까지 최대 유전은 베트남 15-1 광구, 1억 배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대 원유 매장량은 베트남 15-1광구로서 약 1억 배럴 규모(우리나라 지분 기준)

금번 MOU와 HOT를 통해서 확보될 원유 매장량은 베트남 15-1 광구의 매장량 1억 배럴을 현격히 뛰어 넘을 전망.

3개 광구만으로도 기존 최대 매장량 1억 배럴을 초과

먼저 금번 HOT를 통해 확보한 3개 미개발 광구의 가채 매장량만 해도 약 1.5~3.4억 배럴 수준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3개 광구만으로도 기존 최대 매장량인 1억 배럴을 넘어서는 상태.

또한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금번 MOU에 따라 UAE 아부다비 대형 생산 유전(최소 10억 배럴이상)에 추가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 원유 매장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있음.

특히 금번 MOU에 따라 확보될 원유 매장량은 UAE 아부다비 대형 생산 유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인 만큼 HOT를 통해 확보되는 원유 매장량을 훨씬 뛰어 넘는 상황.

현재 UAE 아부다비 전체 매장량은 약 1천억 배럴로서 약 1%만 확보해도 약 10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금번 HOT와 MOU에 대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10억 배럴 수준 매장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

참고로 10억 배럴은 현재 유가를 단순히 적용하면 약 110조원 규모.

4.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원하에 신속히 체결

금번 MOU와 주요 조건 계약서(HOT, Heads of Terms)는 체결 과정에서 특기했던 것은 2가지 사안이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하에 추진되어 실무적 난관들을 뚫고 매우 신속히 추진되었다는 점.

MOU 1년만에 타결

MOU의 경우 프로젝트 착수 1년 만에 체결되었고 본격적인 문안 협상을 착수한 시점부터는 3개월만에 타결되는 성과를 냄.

HOT 7개월만에 타결

3개 광구 주요 조건 계약서(HOT)는 양국 석유공사간의 협력 시작을 위한 MOU를 체결(지난 해 8월)한지 불과 7개월만에 주요 조건 계약서까지 신속히 체결하게 됨.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일정을 독려

특히 양국 정부와 최고 지도자들은 양국간 석유개발 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시하기 위하여 금번 대통령 방문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무진들을 적극 독려.

이러한 배경을 HOT라는 형식을 채택하는 등의 실무적 협의가 이루어 졌고 특히, 지난 가을부터는 금번 발표를 위해 양국 정부가 아예 공동으로 MOU와 주요조건 계약서(HOT)를 함께 준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단기간에 신속히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음.

통상 수 년이 걸려도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운 자원 개발 협상에서 위와 같은 신속한 결과 도출은 이례적인 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없이는 불가능한 했던 일.

Ⅳ.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의 의미

1.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2%에서 15%까지 확보

현재 우리 정부는 금번 아부다비 유전 진출을 통해 향후 약 10억배럴 수준의 매장량을 확보해 나감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전까지 4%(07년말 기준)에 머물렀던 국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약 15%까지 확보하게 됨.

그간 현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 외교와 인수합병 정책을 통해 2007년말 4% 수준에 머물렀던 자주개발률을 지난해('10년)말까지 이미 10%수준으로 높인 바 있음. 금번 유전 확보를 통해 자주 개발율을 다시 약 15%까지 확보 할 수 있음.

■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을 다시 5% 더 늘려서,
남은 임기 중 자주 개발률 20% 확보 목표를 지킬 것임을 약속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이미 수십년 전부터 20%에 이르고 있는 일본의 자주 개발률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임기 중 자주 개발률 20%를 꼭 달성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음.

자주개발률 20%는 에너지 위기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전략적 완충 수준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에 달성한 15% 수준을 넘어서 당초 약속한 20% 자주개발률 목표를 임기 중 반드시 확보할 것임을 추가로 밝힘. 이를 위해 UAE·이라크 등 중요 전략 지역을 지속 공략할 계획.

* 과거 자주개발율 국제비교(07년, IEA) :
이태리 48%, 일본 22.4%, 중국 27%(08년), 한국 4.2%

2. 석유 업계의 평가

중동 핵심 유전지역에 우리나라가 진출

UAE·사우디·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57%를 차지하는 전 세계 핵심 유전 지역. 또한 평균 생산단가가 다른 지역의 1/3에 불과한 최우량 상업 유전 지역.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전체의 80%가 넘는 상태(82%, '10년)

* 전세계 매장량 순위(억배럴) : 1위 사우디(2,466), 2위 베네수엘라(1,723), 3위 이란(1,376), 4위 이라크 (1,150), 5위 쿠웨이트 (1,015), 6위 UAE (978)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6월 자료)

그러나 사우디·쿠웨이트 등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개발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면서 자국 석유회사를 메이저로 키우고 있음. 이러한 산유국의 벽으로 인해 중동 상업 유전에 외국 기업이 진출한 기회는 거의 없는 상태. 금번에 우리가 진출한 UAE와 몇 년전부터 우리가 함께 공략 중인 이라크 등이 거의 유일한 기회.

하지만 UAE 아부다비의 경우는 70년 이상 유전 개발 역사중에 미국·영국 등 서방 소수 석유메이저들(ExxonMobil, BP, Shell, Total)과 일본 기업들만 진출해 있는 상태.

* 국가 기준으로는 70년대에 진출한 일본이 마지막
* 회사 기준으로는 '09년 미국회사가 소규모 유전에 진출한 사례(美 옥시덴탈社, 매장량 0.6억 배럴)를 제외하고는 1980년 이래로 진출 사례 자체가 없음.

우리나라는 금번 서명을 통해 아부다비 Giant급 유전 진입기회를 확보함에 따라 70년대 이후 UAE 아부다비 유전에 진출한 첫 국가가 됨. 전 세계 석유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안.

산유국과 선진국, 석유 메이저들의 벽으로 인해 그간 우리나라는 중동 상업 유전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했으며 동남아, 중아아시아, 남미 등 대안 지역위주의 진출을 추진. 그러나 금번 유전 확보로 원유 개발 중심지인 중동 지역에 확고히 진출

우리나라 석유 개발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순간

위와 같은 이유로 금번 UAE 아부다비 진출은 우리 석유업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순간.

경제성,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루 갖춘 '석유 1번지'에 우리나라가 입성한 것. 특히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번에 우리나라만이 기회를 확보.

현재 우리나라 석유 업계는 아쉽게도 전 세계 순위 77위(석유공사 기준)이지만 금번 UAE 아부다비 유전 입성으로서 석유 개발역사에 한 획을 다시 긋게 됨.

미국·영국 등 국제 석유 메이저들과 우리 석유 업계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

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추가 보강책 확보

6백만 배럴 전략적 공동비축 추진

우리나라와 아부다비 정부는 아부다비 원유 6백만 배럴을 우리나라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고 유사시에 우리나라가 사용하도록 합의함. (석유가스 분야 협력 MOU)

우리나라는 별도 예산 없이 전략 비축유 구매 비용(약 7천억원) 등을 절감하게 되었고 아부다비측은 저장 비용을 절감하는 윈-윈 계약 체결.

일일 30만배럴까지 아부다비 원유 우선 구매권 확보

우리 정부는 최근 불안해 지고 있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동 산유국 중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UAE 아부다비 원유를 우리나라가 최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요청.

이에 따라 아부다비 정부는 향후 증산되는 아부다비 원유 중 일일 최대 30만 배럴까지 우리나라가 최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나라에 부여함. (석유가스 분야 협력 MOU)

Ⅵ. 한·아부다비 '미래성장 동력 공동 협력'도 함께 추진

금번 유전 진출은 '미래 성장동력 공동 발굴'에서 출발

2009년말 원전 계약 체결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간의 관계를 진정한 '100년간의 경제 파트너'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UAE 아부다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미래전략 기획에서 부터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 곽승준)를 중심으로 UAE 아부다비의 다양한 미래전략 기획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기획위원회는 '취약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석유 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중동 최우량 상업 유전지역인 UAE 아부다비에 우리나라 진출을 적극 요청하였고 금번에 그 결실을 거두게 됨.

우리 정부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UAE 아부다비와 우리 경제간의 다양한 미래 전략 협력 방안을 진정성 있게 공동 검토해 나갔고 이에 따라 '유전 협력'에 대한 기회도 서서히 열리게 됨.

'유전 협력'이 본격 논의된 이후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신속히 합류하여 합동 협상팀을 구성하였고 금번 성과를 함께 거둠.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본격적 협력체계를 구축

양국 정상은 기존의 원전 협력과 금번의 유전 협력을 넘어서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의 미래전략기구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아부다비 미래전략기구 E.A.A(Executive Affairs Authority)간에 미래 성장동력 협력 MOU를 금번에 공식 서명.

MOU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아부다비 미래전략기구(위원장 칼둔 알 무바락)이 체결

■ 시스템반도체, 컨텐츠·미디어, 금융분야를 우선 협력과제로 선정

금번 MOU에서는 우선 공동 협력을 추진할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컨텐츠·미디어, 금융 등'을 포함함.

현재 아부다비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약 20%를 이미 점유하고 있는 강자로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추월한 상태.

또한 UAE 아부다비는 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아디야 펀드(약 600~800조원으로 추정)와 무바달라 펀드(추정 곤란)를 보유한 상태로서 전 세계 금융계에서도 막강한 실력자. 금융분야의 경쟁력도 우리나라를 이미 넘어서는 수준.

향후 우리 정부는 '한류로 대변되는 콘텐츠 분야'까지 포함하여 양국간의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공동 발굴해 갈 계획.

< 참고 2 > 질의 응답 자료

Q1. 10억 배럴 이상 MOU의 향후 구체화 일정과 실현 가능성은 ?

□ 현재 아부다비 정부는 3년후(2014년)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 유전들에 대한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

○ 금번 MOU는 위와 같은 재계약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국을 참여시킨다는 구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 참여할 규모도 '최소 10억 배럴 이상 유전'으로 숫자로 명기

○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아부다비 정부의 재계약 협상은 내년중으로 마무리 될 전망

○ 따라서 우리측 참여 내용은 내년 중으로 구체화될 것,
정부는 후속 협상을 신속히 벌여 나갈 계획

□ 대형 상업 유전들을 이미 가동 중인 아부다비 정부는 유전 개발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MOU를 다른 나라와 맺어 준 사례 자체가 없음

○ 우리나라에게만 특별한 문서를 이례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해 준 것
→ 신속 구체화 예정

○ 실제로 금번 발표 자체가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하에 실무적 난관을 뚫고 매우 짧은 시간안에 진행됨

•MOU → 프로젝트 착수 1년 만에 체결, 문안 협상 착수 3개월만에 체결

•3개 광구 HOT → 지난 해 8월에 첫 협의(MOU 서명), 가시적인 성과를 양 국민에게 신속 제시하기 위하여 7개월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요 조건 계약서(HOT)까지 체결

* 수 년간 논의를 거쳐도 구체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자원 개발분야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

□ 이와 같은 맥락에 따라 금번 MOU는

○ 양 국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직접 임석한 가운데 양국의 국가 석유개발 기관들인 한국석유공사(KNOC)과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이 직접 서명

○ 국제 사회에서도 신망과 신뢰도가 높은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

□ 참고로 UAE 아부다비는 알려진 전체 매장량만 약 1천억(980억) 배럴

○ 또한 50억 배럴 이상 초대형 유전과 10억 배럴 이상 대형유전이 다수

○ 우리측을 참여시킬 수 있는 아부다비측의 여력은 충분

□ 원전계약 체결이후 50년, 10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는 양 국간의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음

○ 금번 MOU 엮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신속히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

○ 100년간의 전략적 협력 분위기 속에서 후속 논의가 신속히 진행 될 것.

Q2. MOU는 양해 각서에 불과, 구체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금번 서명을 MOU 형식으로 체결하게 된 이유는

○ 아부다비내 주요 유전들이 아직 기존 조광권 계약에 묶여 있어 우리의 참여 지역과 방식을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음

☞ 아부다비 정부 입장에서 '이중 계약 문제' 발생 ("**Legally impossible**")

○ 아부다비 대형 유전들의 조광권 만료가 3년후(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 불가피하게 MOU 형식으로 작성

□ 그러나 금번 MOU는 칼리파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자 등 아부다비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 서명된 것

○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문서

□ 실제로 금번 MOU는 공동 발표를 미리 부터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가 지난 해 부터 함께 작업한 내용

○ 원전 이후 성숙해가는 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개적인 증표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영국·프랑스와 일본에 이어 UAE 아부다비의 핵심 경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공인해주는 문서

□ 더불어 금번 MOU는 구체성을 더 하기 위하여 '최소 10억 배럴 이상'이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포함

□ 금번 MOU는 양국간의 진정성 있는 약속을 문서화한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님

Q3. 10억 배럴 이상 MOU 구체화 일정과 추진할 내용은?

[① 향후 일정]

□ 현재 아부다비 정부가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유전들은 3년 후인 2014년부터 만기가 도래

○ 다만, 위와 같은 재계약 협상들은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빠르면 내년부터 마무리 될 전망

○ 따라서 **우리측 참여는 내년 중 구체화될 것**

※ 아부다비 대형 유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70년대에 30~40년 단위 조광권 계약을 맺었고 다가오는 2014년 부터 만기가 도래, 이에 따라 아부다비 정부는 현재 매우 예민한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

[② 우리측 참여 방식]

□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을 기준으로 다양한 참여방식이 검토 될 것**

○ 10억 배럴 이상의 유전 또는 여러 유전을 포함한 대형 국제 컨소시움에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이 폭 넓게 검토 될 것

□ **정부는 10억 배럴 원유 매장량을 확보해 나감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추진하여 우리 업계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

○ 후속 협상을 신속히 추진될 것

Q4.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아부다비측이 전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이유는?

□ 원전 계약 체결 이후 성숙된 '100년간의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의 양국 정부와 최고 지도자들간의 신뢰가 기본 바탕

○ 원전 계약 체결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100년간의 동반자' 관계를 신속 발전시키기 위해 UAE 아부다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아부다비 미래전략 기획부터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

☞ 2009년말 우리나라가 수주한 UAE 원전도 아부다비 미래전략의 일환

○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신속히 투입되었고 미래기획위원회는 IT·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국간의 협력 가능성을 공동으로 성실히 분석

○ '말뿐이 아닌 실천을 통한 노력'으로 우리 정부는 아부다비 정부와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신속히 발전시킴

□ 이러한 배경하에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의 UAE 유전 진출'을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기획위원회가 요청했고 아부다비 최고 통치권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전격 수용

○ "(이명박 대통령이 전달한 메시지) 석유 비즈니스적으로만 생각하면 한국을 참여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한 유전 개발 사업자가 아니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UAE 아부다비 경제 협력 파트너이다. 크게 생각해 달라"

□ 실무 차원의 협상은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이명박 대통령, 칼리파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자 등' 양국 최고 지도자들간의 신뢰와 믿음, 비전이 작용하여 돌파구를 마련

※ 실무 협상 경과

·아부다비측은 자국 핵심 자산인 유전을 아부다비 유전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것에 큰 부담, 초기에는 매우 부정적

·마지막 순간까지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 등은 우리나라의 경험 부족을 지속 제기 (적지 않은 진통)

·100년간의 형제 관계를 내다보는 양국 최고 지도자들간의 믿음과 비전이 작용하여 실무진의 난항을 뚫고 협상이 최종 타결

□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전략적 세일즈 외교 노력을 총 동원,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

○ 대통령 스스로 아부다비 최고위급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 (전화 통화, 회담 등)

○ 수 차례의 특사 파견, 수 십 차례의 협상팀 파견을 통해 실무 협상에 총력

○ 결국 지난 여름부터 아부다비의 변화를 서서히 이끌어 냄.

○ 특히, 지난 가을부터는 금번 발표를 양국 정부가 아예 공동으로 함께 준비, 단기간에 신속히 성과를 도출해 냄

Q5. 금번 아부다비 유전 참여 관련 탐사 리스크는 없는가?

□ 10억 배럴 이상의 아부다비 대형 유전은 대부분 이미 생산중인 유전 → 탐사 리스크는 제로

□ 3개 광구의 경우도

○ 이미 우리나라 석유공사 기술진이 직접 평가하여 5.7억 배럴의 발견원시부존자원량(Discovered Petroleum Initially In Place)을 확인한 상태

○ 이제 남은 것은 '개발계획과 상업조건 협상을 통해 얼마 만큼 채굴해내느냐?'의 문제임

□ 금번 아부다비 유전 발표는
과거의 모호했던 유전 확보 발표와는 진행 단계가 전혀 다른 차원

Q6. 에너지 자급률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고 중요한 가?

□ 에너지 자급율은 '국가 석유·가스자주개발률'로 산출

○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하여 확보한 생산량을
우리나라 전체 연간 석유가스 도입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비율

□ 자주 개발율 20% 수준은 에너지 위기시에 전략적 완충이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2007년까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일본 등 주요국은 20% 이상을 상회하였지만 우리만 자주개발률이 매우 낮았음

* 자주개발율(07년, IEA) : 이태리 48%, 일본 22.4%, 중국 27%(08년), 한국 4.2%

□ 이명박 대통령은 위와 같은 취약점을 인지하고 취임 초부터
임기 중 자주개발률 20% 확보 목표를 지속 제시

○ 그 후 적극적인 자원외교와 전략적 인수합병 정책을 통해 현 정부 출범 당시 4% 수준에 머물었던 자주 개발율을 지난 해 말 이미 10% 수준으로 높였음.

□ 또한 금번 아부다비 진출로 자주 개발율을 또 다시 15%까지 끌어올리게됨

□ 현재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전략적 완충 수준인
자주 개발율 20% 확보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에 20%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UAE 아부다비, 이라크 등 전략 지역을 지속 공략할 계획

< 최근 4년 국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추이 (단위 : 천배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6	2010.12
일 원유·가스 도입물량(A)	2,971	3,013	2,891	3,111	3,152
일 자주개발 물량(B)	125	172	260	283	342
자주개발율(B/A)	4.2%	5.7%	9.0%	9.1%	10.8%

Q7. 3개 광구에 대한 지분 100% 참여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인가?

□ 3개 광구에 대한 주요 조건 계약서(HOT)에 의할 때 우리나라는 3개 광구에 대해 최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음

○ 아직 최종 협상이 남아있어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당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것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지분에 힘 입어 우리가 직접 유전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됨

○ 그간 우리나라는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치중, 유전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미숙한 상태

* 최대 유전인 베트남 유전도 코노코 필립스 등과 공동 개발 등

○ 금번 3개 광구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유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회를 확보한 것

* 우리 석유업계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를 확보

□ 특히 메이저 석유회사만이 진출해 있는 아부다비 지역에서 체득한 실질적 개발·운영 경험은 향후 여타지역에서 광권 획득에 큰 도움으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음

○ 우리나라 석유 개발업계 성장의 전기가 마련된 셈.

Q8. 주요조건계약서(HOT)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무엇이며 구속력은 있는가?

□ 주요 조건 계약서(Heads of Terms)는 3개 광구를 금번 대통령님 방문에 맞추어 우리측에 신속 배정하기 위하여 양측이 협의하여 적용한 방식

○ 본계약 체결에 앞서 당사자간에 주요 조건에 대해 사전 합의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서임

●일종의 신속 착수 계약서,
핵심 주요 조건들만 뽑아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서 시간이 걸리는 세부 후속 계약을 마무리

□ HOT 계약 체결을 통해 본 계약에 담길 주요 조건에 대해 합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 졌으므로 후속 본계약 체결은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다만 HOT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업적 계약이므로 내용 공개는 곤란

Q9. 금번 아부다비 유전 관련 후속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최소 10억 배럴 이상 유전 참여는
아부다비측의 조광권 재계약 협상 추이에 맞추어
우리측 참여 내용을 논의해 나갈 예정

○ 특히, 내년부터 대형 유전의 조광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우리측 참여 방식과 폭 등을 폭 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

□ 3개 광구 참여는 HOT 서명 이후 본계약(Concession Agreement) 체결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열릴 전망

○ 양국 석유공사간의 부분적인 추가 탐사와 구체적 상업조건 등에 대해 실무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 금년 중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작업이 순조로우면 일부광구에서 2013년부터 조기생산 가능하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생산시설 건설, 시추 및 생산에 통상 3~5년이 소요

□ 금번 유전 참여 관련 후속절차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분위기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

Q10. 아부다비 유전참여는 언제부터 착수했나? 실무추진 체계는 ?

□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아래와 같이 지난 1년간의 과정을 직접 진두 지휘

(1) '09년 원전 수주이후 UAE 아부다비 미래전략 기획 지원을 신속 지시

"(대통령님 메시지) UAE 원전도 결국은 아부다비 미래 전략의 일환이다. 양 국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부다비 정부의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착수할 것"

(2)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 곽승준)가 제일 먼저 투입되었고 UAE 아부다비의 미래 전략기획을 적극 지원

(3) 그 후 양 국간의 신뢰 관계에 힘 입어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기획위원회는 '한국의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을 요청

(4) 아부다비 미래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지난 해 여름(7월)부터 아부다비측의 변화를 서서히 이끌어 냄

★ 지난 해 8월 구체적인 유전 참여 기회가 첫 가시화

(5) 그 후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자원 개발기관들)'가 신속히 합류, 미래위·지식경제부·석유공사가 합동 전문 협상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 금번 발표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

●미래위 : UAE 아부다비 미래전략 기획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UAE 유전 참여 기회를 협상, 후속 협상을 전체 지휘

●지식경제부 : 자원개발 총괄부처로서 상황을 공유하며 전략적 후방 지원

●석유공사 : 실무 유전 개발기업으로서 기술적 분석과 실무 협상을 담당

Q11. 유전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텐데 자금조달 계획은 ?

□ 금번 UAE 아부다비 유전 건은 탐사 리스크가 없는 유전들로서 수익성이 담보된 상태

○ 매장량에 입각한 수익 전망이 신속히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 자금 조달이 가능, 자금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음.

•석유공사 자체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컨소시움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은 방안별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면서 후속 상업 협상과정에서 동시에 검토해 나갈 예정

□ 사업별로 보면

○ 통상적으로 10억배럴 이상의 매장량과 일정 수준 생산이 있는 유전은 해당 유전을 기초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함

•대부분 이미 생산 중인 상업 유전으로서 상업성이 분명

○ 3개 광구는 개발단계를 거쳐 일부지역에서 조기 생산전까지 약 2~3억불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는 석유공사 단독으로도 조달이 가능한 수준임

•그러나 역시 수익성이 우수, 민간자금 조달 등에 전혀 문제가 없음.

Q12. UAE 아부다비를 “석유 1번지”, “프레미어 리그” 등으로 표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 중동 지역은 핵심 유전지역이지만 진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지역

○ 중동 지역은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57% 생산 단가도 타 지역의 1/3에 불과한 핵심 상업 유전, 우리나라의 경우 80%이상의 원유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

* 전세계 매장량 순위(억배럴) : 1위 사우디(2,466), 2위 베네수엘라(1,723), 3위 이란(1,376), 4위 이라크 (1,150), 5위 쿠웨이트 (1,015), 6위 UAE (978)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6월 자료)

○ 그러나 사우디, 쿠웨이트 등 대부분 중동 국가가 직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참여 기회가 매우 희박, UAE, 이라크 정도가 남은 기회임

□ 그러나 UAE 아부다비의 경우도 진입 장벽은 현격한 상태

○ 70년 이상 석유 산업 역사속에서 아부다비에 진출한 회사는 세계 4대 메이저 회사, 일본회사 등 극소수에 불과

○ 70년대 일본이 진출한 이후 이제 우리나라가 아부다비에 ‘첫 진출하는 나라’

□ 또한 UAE 아부다비 유전은 중동 지역 중에서도 정치·경제적 환경, 생활환경·근무여건이 가장 안정적, 외국 자본에도 가장 우호적.

○ 배럴당 평균 원유생산 단가가 여타 중동지역의 1/4 수준, 중동유 중에서는 품질도 가장 우수

- 중동지역 최고 품질인 고급 경질유(API 기준 35도, 여타중동지역 30도)
- 배럴당 평균생산 단가(아부다비 EAA 발표자료) 전세계 평균 18 US$, 여타 중동지역 6 US$, 아부다비 1.5 US$

□ 이에 따라 UAE 아부다비는 전세계 석유업계가 가장 진출하고 싶은 ‘석유 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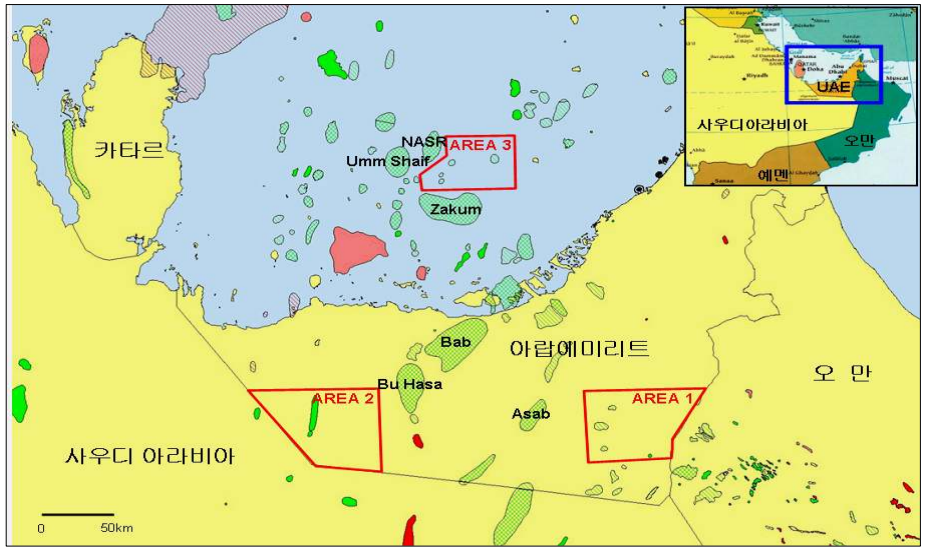
○ 석유 메이저들만 진출해 있는 ‘프레미어 리그’로 통하고 있음

< 참고 3 > 주요 통계자료

1. 주요조건 계약서 체결 3개 광구 개요

□ 대상광구 : 아부다비 육해상 3개 광구(Area 1, Area 2, Area 3)

< 대상광구 위치도 >



□ 광구별 주요사항

대상광구	면 적	발견원시부존량 (MMboe)	현 지분	광구 내 발견유전
Area 1 (육상)	4,340km^2	188.8	ADNOC 100%	4개 미개발유전 − Haliba, Riqeah, Bu Qalla, L1−G
Area 2 (육상)	4,860km^2	207.2		1개 미개발유전 − Dhafra−Mushash
Area 3 (해상)	2,640km^2	173.1		3개 미개발유전 − Bu Dana, ADNOC 1B ADNOC 1C

* 발견원시부존량은 석유공사 평가 자료

2. 주요 산유국 매장량 및 일산량

□ 주요 산유국

국 명	매장량		생산량	
	원 유 (Bbbl)	가 스 (Tcf)	원 유 (mmbopd)	가 스 (Bcfpd)
사우디아라비아	246.6	279.7	9.7	7.5
베네수엘라	172.3	200.1	2.4	2.7
이란	137.6	1,045.7	4.2	12.7
이라크	115.0	111.9	2.5	N/A
쿠웨이트	101.5	63.0	2.5	1.2
아랍에미리트	**97.8**	**227.1**	**2.6**	**4.7**
리비아	44.3	54.4	1.7	1.5
나이지리아	37.2	185.4	2.1	2.4
캐나다	33.2	62.0	3.2	15.6
미국	28.4	244.7	7.2	57.4

*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10.6월 발표)

□ 한국 확보 매장량 및 생산량

구 분	10.6월	10년말
매장량 (Bboe)	4.1	4.9
생산량 (kboepd)	283	342

* 출처 : 지식경제부, 10.6월 자료는 해외자원개발협회 매장량 집계현황, 10년말은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사 인수분을 포함

3. 세계 석유소비국/수입국 순위

□ 석유 소비국 순위

순 위	국 명	소비량	
		원유(MMbbl/일)	가스(Bcf/일)
1	미국	18.7	62.6
2	중국	8.2	42.5
3	일본	4.4	9.2
4	인도	3.0	5.0
5	러시아	2.7	42.5
6	브라질	2.5	1.8
7	독일	2.4	9.3
8	사우디아라비아	2.4	7.5
9	한국	2.2	3.3
10	캐나다	2.2	9.2

※ 출처 : CIA 추정치(2009~2010년), * 원유기준으로 순위 적용

□ 석유 수입국 순위

순 위	국 명	수입량	
		원유(MMbbl/일)	가스(Bcf/일)
1	미국	11.3	7.4
2	일본	4.0	9.0
3	중국	3.5	0.7
4	인도	2.6	1.2
5	한국	2.3	3.2
6	독일	2.1	8.0
7	이탈리아	1.8	6.7
8	프랑스	1.7	4.4
9	스페인	1.2	3.3
10	네덜란드	1.1	2.4

※ 출처 : IEA World Energy Statistics 2010(원유:2008년, 가스:2009년) 및 CIA 추정치(중국,인도,네덜란드 가스수입량 :2009년) *원유기준으로 순위 적용

4. 우리나라 원유 수입 현황

○ 국가별로 사우디 277백만b(31.7%), UAE 106백만b(12.1%), 쿠웨이트 103백만b(11.8%), 이란 73백만b(8.3%), 카타르 64백만b(7.4%), 이라크 60백만b(6.9%) 순으로 수입

< 주요 국가별 원유수입실적 : 물량/금액 기준 >

구 분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란	카타르	이라크	계
총물량(천b)	276,787	105,656	103,079	72,605	64,362	59,956	872,415
일물량(천b)	758	289	282	199	176	164	2,390
비 중(%)	31.7	12.1	11.8	8.3	7.4	6.9	100.0
증가율(%)	8.6	△7.8	3.0	△10.8	19.9	△4.1	4.5
금액(백만$)	21,870	8,417	8,049	5,616	5,069	4,647	68,684

○ 지역별로 중동 수입비중은 82%로 전년비 2.7%p 감소한 반면, 아시아 수입비중은 18%로 전년비 3.5%p 증가

< 주요 지역별/연도별 원유수입실적 : 물량 기준 >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전년비(%)
중 동	713,647	705,363	746,458	1.2
아 시 아	152,354	116,379	108,482	30.9
아프리카	4,592	11,608	9,932	△60.4
미 주	1,823	1,734		5.1
계	872,415	835,085	864,872	4.5

* 2006년 이후, 유럽으로부터 원유 수입 실적은 없음

5. 주요 석유기업 현황

□ 중동 국영석유회사가 매장량 등 기준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

□ 기존 석유 메이져의 경우 ExxonMobil, BP, Shell, Chevron, ConocoPhillps, Total 순으로 순위를 차지

순위	회 사 명	국 가	매 장 량		생 산 량	
			석유 (백만배럴)	가스 (십억cf)	석유 (천b/d)	가스 (백만cf/d)
1	Saudi Aramco (국영)	사우디	264,100	275,200	9,713	7,296
2	NIOC (국영)	이란	137,600	11,045,700	4,216	12,701
3	ExxonMobil	미국	11,651	68,007	2,387	9,273
4	PDV (국영)	베네수엘라	211,000	178,800	3,170	4,054
5	CNPC (국영)	중국	21,912	99,616	2,760	7,141
6	BP	영국	10,511	45,130	2,535	8,485
7	Shell	네덜란드	5,687	49,055	1,680	8,483
8	Chevron	미국	6,973	26,049	1,872	4,989
8	ConocoPhillips	미국	6,285	24,247	1,616	5,172
10	Total	프랑스	5,689	26,318	1,381	4,923
중 략						
77	KNOC (국영)	한국	672	1,814	82	261

* 2010.12월 발표 (평가 기준시점 : 2009.12월)
* 평가기관 : PIW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PIW는 글로벌 에너지전문 정보 매체로서 매년 12월 석유/가스 매장량, 생산량 및 제품 판매량, 정제 능력 등 총 6개 항목을 평가하여 국제 석유회사 순위(100개사)를 발표)